

하루 * 사례 인터뷰전

정신병리 임상을 나누는 모두의 하루

첫 번째

히스터리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하루 종일

아이처럼심리상담클리닉_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142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표방하는 임상가이거나 아닌 임상가

정신보건분야 종사자/연구자이거나 아닌 분

1. '하루'를 위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하루'를 함께 기획할 연출가 = 5명
2. '하루' 동안 현장에서 온몸으로 참여할 배우 < 15명
3. 화면으로 어디선가 '하루' 중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볼 관객 ∞

신청 및 문의_hwohwo@gmail.com

아이처럼심리상담클리닉 원장 김은준

〈하루 * 사례 인터뷰전〉(이하 '하루')은 정신보건분야에 진심어린 애정을 가지신 모든 분들이 모여 임상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루'에는 저의 '인터뷰전(inter-vision)'의 이상이 담겨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그것의 전체를 공개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터뷰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수직적이고 종적인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 '횡단하는 지식의 상호 전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전문 분야, 소속과 관계 없이 모두에게 열어놓고자 합니다.

정신분석가, 정신의학자, 임상심리학자, 행동치료사 등의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냥 아빠, 자칭 나르시스트 등 어떤 분이라고 해도 해당 '하루'의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4년을 시작으로 매년 5월의 마지막 토요일, 9월의 마지막 토요일, 한 해 두 번의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두 '하루'의 주제가 공개되며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5명의 연출가는 해당 '하루'를 저와 함께 미리 전체적으로 기획하는 역할과 함께 그 '하루'의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 하나를 준비합니다. 형식과 내용은 자유입니다. 강의, 연구 혹은 임상 발표, 자기분석 등의 고전적인 방식도 가능하고 어쩌면 하나의 창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준비된 이야기들에 배우와 관객의 이야기가 무수히 더해지면 너무나 의미있고 즐겁겠지요.

장소의 제약으로 오프라인 참가자는 연출가 5명에 배우를 합쳐 20명의 인원으로 제한되며 연출가와 배우는 선착순과 '하루'종일 참여 가능 여부'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모두에게 무료입니다. 연출가로서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거꾸로 응당 강연비를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들도 무료로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종일 함께하는 연출가와 배우에게 제공되는 산해진이 가득한 두 끼의 식사와 그 밖의 간식, 그리고 어른의 저녁음료는 저와 연출가들이 그 수준과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오프라인 참여자들이 그 비용을 합리적인 방식(n분의 1 또는 사다리타기 등)으로 나눠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구상한 '하루'의 형식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하루'의 내용은 앞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 5월 마지막 토요일에 있을 첫 번째 '하루'의 주제는 〈히스터리〉이고 9월 마지막 토요일 두 번째 '하루'의 주제는 〈자페스펙트럼〉입니다.

정신보건분야의 새로운 한 장면이 될 '하루'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4년 1월 9일 김은준